

〈라 트라비아타〉를 중심으로 본 코르티잔(Courtesan) 복식에 관한 연구

김 희 정[†]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Courtesan Clothing in the Relation to <La Traviata>

Hee-J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8. 5. 21. 접수일 : 2008. 11. 25. 수정완료일 : 2008. 12. 30.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creation background and social position of courtesan which is treated 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its effect on fashion and research representative courtesans from ancient hetaera to the 19th century and their costume characteristics. Its another purpose is to analyze the costume of Violetta, who is a heroine of opera <La Traviata> and its costume characteristic as a courtesan.

Most Courtesan clothing were made from bright color, silk and lace which were light, or transparent materials. Using silk and cashmere which were the symbols of class, she took the cutting edge fashion and struggled to break the social barriers.

The clothing which the Courtesan wore always became a gossip among people and popular to the designers who could show their creativities because the Courtesan boldly wore the cloth like movie actresses or stars.

The Courtesan who led the fashion not only showed the fashion as a simple expression of the beauty but also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which reflected their social awareness with arts,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time and people.

Violetta's party dress which was shown in the first and third acts of <La Traviata> showed the shoulders and chest because of the deep and wide cut décolleté, the waist was tightened with a corset as much as possible, and the opulent hips were inflated by the crinoline so when they walked it was swaying. Also it was decorated with splendid materials such as silk and lace, and sparkling jewels, fans, and neckless and even in case of the general clothing in the second act, it was decorated with braids and lace, frills and ribbons. In the third act, the weakness of the sick woman who was closing her life as the splendid Courtesan was emphasized by using colors of white and light purple and thin transparent materials.

Key words: Courtesan costume(코르티잔 복식), La Traviata(라 트라비아타).

I. 서 론

복장이란 그 시대 정신이 배어 있는 육체를 다시
그 시대 정신 속에 집어넣는 거꾸집과 같은 것이다.
동시대의 모습을 그려낸 쿠르베, 마네, 드가, 베로트,

이 논문은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heejee05@hanmail.net

르누아르, 툴루즈 로트레크와 같은 화가들의 그림에는 코르티잔들의 얼굴과 자세가 담겨 있다. 또한, 보들레르의 시, 발자크, 뒤마 부자, 졸라, 플로베르, 콜레트의 소설에도 코르티잔이 등장하며,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오펜바흐의 작품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피에르 르누아르의 〈콜라 몬테즈〉, 하워드 호크스의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등은 모두 매춘부나 코르티잔의 이야기와 전설에 바탕을 두고 있어¹⁾ 만약 코르티잔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문학이나 현대인의 감성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각 시대별로 코르티잔의 숫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녀들에게 야만적인 형벌을 가하던 마리아 테레시아(Maria Theresia)의 순결위원회가 위세를 떨치던 시대에도 4,000명 정도에 이르렀을 만큼 많은 수의 코르티잔들이 있었다²⁾.

코르티잔은 이중적인 잣대에 의해 존재하지만 점차 이름을 날리면서 여성들을 구속했던 성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경제적인 독립은 여권 회복의 꿈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근세에 이르러 귀족 청년들이 인습을 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모험을 무릅쓰기 시작하면서 코르티잔의 역할이 줄게 되고 그 자취를 서서히 감추었다.

19세기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Georg Simmel)에 의해 패션 창조자로서 인정받기도 했다³⁾ 코르티잔은 잘 입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언제 입어야 하는지 알아야 했고, 적절한 때에 상대방을 웃게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아름다움이라는 공통적인 덕목이 있었다.

패션은 동음이의어인 쾌락(passion)의 실친이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코르티잔의 역할과 패션의 역할에는 공통된 점이 있으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 작용의 행위인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코르티잔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위치, 패

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며, 둘째, 고대 히타이라부터 19세기까지 대표적인 코르티잔을 살펴보고 복식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복식을 분석한 후 코르티잔으로서의 복식 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패션에 영향을 미친 코르티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로 인해 향후 이루어질 코르티잔의 복식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 자료 연구, 사진 자료와 비버리 실즈 주연(Beverly Sills, 1976, 미국), 안젤라 게오르규 주연(Angela Gheorghiu, 1995, 독일), 스테파나 본파넬리 주연(Stefania Bonfadelli, 2002, 이탈리아), 르네 플라밍 주연(Renée Fleming, 2006, 미국) 등 4개의 〈라 트라비아타〉 공연물을 Digital Multimedia Converting System으로 영상 캡처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르티잔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위치

코르티잔은 부유한 남자들이나 귀족들과 관계를 가진 창부⁴⁾ 혹은 정부(情婦)이며, 아내에 가까울 정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말한다.

코르티잔이라는 말은 14세기 로마에서 처음 사용된 코티지아노(Cortigiano) 또는 이탈리아어 쿠티에(Courtier)에서 다소 의미가 변형되면서 여성형으로 진화되었다. 다시 프랑스어인 쿠티잔느(Courtisane)로 발전했다가 마침내 영어의 코르티잔(Courtesan)이 되었다⁵⁾.

수 세기에 걸쳐서 유럽 문화는 여성들의 혼전 순결을 중시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코르티잔의 전통을 길러내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상류 출신의 여성이라도 상류 사회에서 내몰리는 처지가 되면 최선책으로 코르티잔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19세기 의류산업체에서 주로 일하던 여성들은 그들이 입던 어두운 회색 옷에 비유해서 그리제트(gri-

1) 수잔 그리핀, *코르티잔 매혹의 여인들*, (서울: 해냄, 2002), p. 27.

2)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II*, 이기웅 역 (서울: 까치, 1993), p. 286.

3) Diaana Crane,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미석 역 (서울: 한길사, 2004.), p. 32.

4) 사전 검색 [2008년 2월 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courtesan>

5) 수잔 그리핀, *Op. cit.*, p. 22.

sette)라는 말로 불렸는데,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도 “문란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사용되었다⁶⁾. 많은 코르티잔이 과거에 여공이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으며 운이 좋거나 특출한 면을 가졌다면 힘든 노동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파리 그랑 불바르(Grand boulevard)라는 구역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며 정부생활을 했던 이들을 로레트(lorette)라고 불렀는데, 코르티잔의 후보 또는 정부라는 뜻을 지녔다. 로레트 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소수만이 코르티잔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로레트는 변변한 자유나 경제력도 없는 일반 귀족 여인들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⁷⁾. 로레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여성들은 굴지의 재력가나 재상, 심지어는 왕의 정부 등 높은 지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부남이 숨겨둔 정부와는 달리 코르티잔들은 자랑거리여서 버젓이 여인과 함께 공공장소와 사교장소, 카페, 레스토랑, 무도회장, 파티장을 드나들었으며 매춘부같이 사창가에 살거나 거리에 나가도 되는 코르티잔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출세였다.

2. 코르티잔과 패션

상류 사회에 들어간 코르티잔은 기득권 주위를 맴돌며 예술과 성의 자유 사이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연합을 통해 훗날의 사교계로 이어지는 전통을 부흥시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유명 인사였던 코르티잔은 요즘의 인기 연예인으로 왕, 국가 관료, 자본가, 유명 작가와 화가와 염문을 뿌리고 다녔으며 그녀들의 옷차림과 행동은 계속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주간지의 기사거리가 되었다.

코르티잔은 유행에 뒤처지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멋쟁이들 중에서도 돋보여야 했으며, 샹젤리제나 불고뉴 숲, 룡상 경마장, 무대 위나 극장의 칸막이 좌석, 여행지나 온천 휴양지 등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드는 곳 어디서나 뽐내고 다니며 유행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랑프리 경마 경주가 행해지는 기간 동안 경마장은 드레스의 전장이 되었는데, 코르티잔은 화려한 천, 짙고 은은한 색상, 리본, 레이스, 자수, 깃털 모자, 반짝이는 보석으로 눈부시게 치장하여 귀부인들의 시샘을 받았으며, 외국의 구매 대리인, 의상 제작자, 화가와 전문 기자들에 둘러싸임으로서 왕족에게만 주어졌던 국민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었고 다음 시즌의 유행을 예고하였다.

코르티잔은 여배우들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와 같은 유명 배우는 패션너블한 유행선동자로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 착용한 의상과 보석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으며, 스스로의 이미지를 새로이 제시하며 스펙터클한 여배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⁸⁾.

사실 코르티잔들은 관례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시도했는데, 이 독창적이고 대담한 유행에 의해 그녀들은 사교계 여성들과 더불어 서로를 매혹시키며, 복잡한 경쟁이 은밀히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했고 서로를 관찰하며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했다⁹⁾. 따라서 코르티잔과 고급 사교계 사람들이 최신 유행의 옷차림을 차려입을 경우에는 외모만으로 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III. 세기별 대표적인 코르티잔

1. 16세기 이전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히타이라(hetaera)라는 이름으로 귀족과 부자를 상대하는 고급 매춘부가 있었는데,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유의 의상을 걸치며 국가에 세금도 바치는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었다¹⁰⁾.

그리스의 코르티잔이었던 히타이라는 여제사제인 동시에 치료사였으며, 피부와 머리에 영양을 주고 미인의 필수 조건인 건강미를 유지하기 위해 약초를 사용했다. 또한, 옷을 고르는 일에서도 극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았는데, 붉은색과 금색의 대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그 시대의 화가들처럼 금발머리

6) 수잔 그리핀, *Op. cit.*, p. 17.

7) 조운진,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서울: 시공사, 2007), p. 17.

8) Heather McPhearson, “Sarah Bernhardt: Portrait of the Actress as Spectacle,” *Nineteenth Century Contexts* Vol. 20 (1999), p. 409.

9) Philippe Perrot, *부르주아 사회와 패션*, 이재한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7), p. 333.

10) 김복래, “철학자가 사랑한 매춘부 히타이라,” *ANTIQUUS* Vol. 13 (2007), p. 10.

에 진홍색 새틴 드레스를 입었다¹¹⁾.

이러한 고대 풍습이 14세기 이탈리아에 다시 나타났는데, 르네상스 시대 코르티잔의 역할은 축제 때 경기의 흥을 돋우는 것으로 축제 행렬 시 꽃을 뿌린 다든지 귀한 손님을 안내하고 원형 무대에서 춤을 추기도 하며 사절단의 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쿠르티자네(Kurtisane)라고 불린 고급 매춘부는 당시 귀족 계급들의 사교생활에서 최상의 기호품이어서 저택과 하인, 마차를 제공받았으며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연회에 나갔다. 교황과 추기경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이러한 여성을 이탈리아에서는 메레트리체(meretrice), 일반적인 매춘부와 구별하여 존경스러운 창녀라는 뜻의 코르테사나 오네스타(cortesnae honestae)라고 불렀다¹²⁾.

각국의 왕비와 미모를 경쟁할 만한 특급 매춘부들의 수가 베네치아에서만도 150만 명이나 되었으며¹³⁾, 16세기 당시 가장 사랑받았던 베로니카 프랑코(Veronica Franco)는 프랑스 앙리 3세의 베니스 방문 때 유명한 코르티잔들이 그려진 210장의 초상화 중에서 선택된 코르티잔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베니스에서 코르티잔은 신분상으로는 귀부인과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처럼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며 아내와 가문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16세기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간 중심 사상이 대두되고 여성의 앞가슴 노출은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팔과 다리의 노출은 비도덕적이라 하여 팔의 윤곽이 들어난 것조차 음란한 것으로 취급되어 허용되지 않았다¹⁴⁾.

2. 17세기

17세기와 18세기 귀족과 왕족이 프랑스의 궁중과 별장, 아름다운 저택에서 코르티잔들과 함께 했던 생활을 갈랑테리(galanterie)라고 불렀는데, 몇몇 유명한

코르티잔들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1) 니농 드 랑크로(Ninon de Lenclos)

프랑스의 가난하고 혈통도 분명하지 않은 귀족 집안에서 1620년에 태어난 니농은 가난하여 결혼할 처지가 되지 못하자 타고난 미모와 지성으로 자신에게 열려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코르티잔이 되었다. 한편, 11세 때 니농은 남성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남성 복 상의와 푸른 벨벳의 짧은 바지, 부르고뉴 벨벳으로 만든 짧은 승마복과 승마용 부츠, 붉은 깃털이 달린 비버 모자를 갖추어 입기도 했는데,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상 규칙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30대 초반 코르티잔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니농은 왕의 사촌인 그레이트 콘데(Great Condé)를 비롯하여 귀족과 부자 애인을 두었다. 루이 14세도 니농의 지성적인 솔직함을 좋아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녀는 곧 파리 사교계의 중심에 섰고, 1660년대 후반까지 그녀가 코르티잔을 은퇴하는 날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연인이 되었다¹⁵⁾.

〈그림 1〉 니농의 복장은 전세기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사라져 자유로운 느낌이 들며 목선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타원으로 대담하게 파고 낮은 목선 위에 레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과도하게 파인 목선으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그러한 유행은 계속되었으며 목에는 꼭 맞는 진주목걸이를 하고 당시 유행대로 앞머리를 내리고 나지막하게 뒤로 빗어 올린 후 보석이 장식된 헤어밴드를 하였다.

2) 넬 퀴(Nell Gwyn)

넬 퀴는 왕정복고 시대에 가장 큰 명성과 사랑을 얻었던 영국 최초의 여배우이자 코르티잔으로 찰스2세(Charles II)의 총애를 오랫동안 받았던 전설적인 인물이다¹⁶⁾.

그녀의 미모와 재치는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었으

11) 수잔 그리핀, *Op. cit.*, p. 76.

12)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I*, 이기웅 역 (서울: 까치, 1993), p. 300.

13) *Ibid.*, p. 304.

14) 남후남, “패션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 노출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23.

15) 사전 검색 [2008년 2월 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en.wikipedia.org/wiki/Ninon_de_l'Enclos

16) 니키 로버츠, *역사 속의 매춘부들*, (서울: 책세상, 2004), p. 262.



<그림 1> 니농 드 랑크로.
(<http://www.google.com/imgres>)



<그림 2> 넬 권.
(<http://www.npg.org.uk/live/search>)



<그림 3> 풍파두르.
(<http://www.madamedpompadour.com>)

며, 15세에 작은 역할을 얻은 이후 배우로서 성공하였다. 당시 여주인공들은 꼭 끼는 반바지를 입고 청년으로 변장하여 몸매를 과시하였는데, 넬 권은 특별히 매끈한 다리로 유명했으며 이후 그녀의 신분은 계속 상승하였다.

<그림 2> 넬 권의 모습에서는 경직되지 않은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목선의 데콜테(décolleté) 위로 풍성한 주름의 속옷 슈미즈가 보이기도 한다. 리본과 레이스 장식이 많아지고 소매 전체는 크게 부풀려서 팔꿈치나 손목에서 잡아매는 것이 보이는데 이 모두가 부드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목에 꼭 졸라매는 목걸이는 보석 장식이 단순하였고, 머리는 17세기 후반의 헐리 벌리(hurly-burly) 스타일로¹⁷⁾ 짧고 손질이 간편하며 전체적으로 쉼이 들어간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이다.

또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수백년 동안 감추어왔던 팔의 일부를 드러내기 시작해서 팔꿈치에서 약간 내려온 길이의 소매를 착용했는데,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숙치 못한 차림새를 비난하며 손목까지 오는 긴 소매를 고수하였지만¹⁸⁾ 그림에서 보듯 넬권의 경우 거의 팔꿈치까지 팔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는 패션 리더로서의 코르티잔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3. 18세기

18세기 이전 왕실에서 코르티잔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부와 신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들 중 많은 코르티잔은 공개 재판을 받거나 권력에 굶주린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후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후원자들을 신중하게 대하고 공경함으로써 안전하게 은퇴하는 코르티잔들이 많았다.

1) 풍파두르(Pompadour)

루이 15세의 애첩으로 15년간 막후의 권력자였던 마담 풍파두르는 볼테르(Voltaire)나 크레비용(Crébillon)을 후원하는 등 예술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용 재단사의 디자인을 변형시키는 재주로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제2제정 시대의 코르티잔들도 모두 그녀의 선례를 따랐다.

세련된 향락을 추구하고 유연하고 여성적인 우아함을 지향하는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그림 3>에서 보이는 풍파두르의 모습도 호사스러운 치장을 하고 명예를 손에 쥔 왕의 애첩으로서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가는 허리, 부풀려진 스커트, 인위적으로 드러나게 만든 가슴 등이 18세기 여성적 분위기의 이상적인 옷차림이다.

17)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3인 역 (서울: 까치, 1988), p. 430.
18) J. Anderson Black, *세계 패션사 2*, 윤길순 역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7), p. 235.

전시대에 늘어뜨렸던 머리스타일은 앞이마에서 뒤쪽으로 빗질하여 높이 올리는 머리형으로 바뀌었고 머리 위에는 진주, 꽃, 리본 등으로 장식하였다. 목에 꼭 맞게 졸라매는 네크프릴과 팔꿈치 안쪽, 스토타커 위에도 리본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는데, 특히 가슴에는 허리 쪽으로 갈수록 리본 매듭의 크기가 작아져서 마치 사다리처럼 보이는 에셀(échelles)이라고 불렀던 리본이 장식되었고, 네 줄로 된 진주팔찌가 사용되었다.

〈그림 3〉에서 보이듯 바스락거리는 타프타, 꽃무늬와 줄무늬가 화려한 새틴과 다마스크, 반짝이며 꽃무늬가 있는 룬과 디미티 등 얇고 우아한 직물은 이 시대 복식을 사치, 낭비, 화려함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었으며¹⁹⁾, 밝은 하늘색, 부드러운 장미빛, 옅은 초록색이 등장하는 등 밝고 생생한 색상 대신에 약간 음영이 있는 듯한 희미한 색상을 사용하여 시대의 퇴폐적인 기호를 반영하였다.

풍파두르가 입은 모든 의복들은 패션 뉴스가 되었으며, 넓어진 스퀘어 네크라인은 궁중복식에 사용되던 널따란 곡선형 데콜타주(décolletage)와의 경쟁 속에서 그 인기가 지속되었다.

2) 뒤바리(Madame Du Barry)

이웃아버지의 정부이자 코르티잔이던 프란체스카

(Francesca)를 동경했던 그녀는 늘씬한 몸매에 금발머리, 섬세한 이목구비, 아몬드 모양의 빛나는 푸른 눈을 가졌으며, 장 뒤바리(Jean Du Barry) 백작의 눈에 들게 되고 사교계에 데뷔하였다. 18세기의 그리제트였으며 한 때 매춘을 하다가 루이 15세의 애첩으로 변신한 노동자 계급이었던 마담 뒤바리는 왕과의 향락적인 생활로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다.

〈그림 4〉의 뒤바리 흉상은 1770년대에 카피에리(Caffiéri)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복장의 묘사가 거장의 손길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다. 이 대리석 흉상은 코르티잔으로서 연극적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천을 통한 가슴 표현, 레이스 선장식, 흘러내리는 듯한 드레이퍼리,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장미꽃 장식, 레이스 처리가 화려하다.

당시 복식은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사조의 지배를 받게 되어 목선은 가슴이 많이 드러나도록 깊게 파고 허리는 극도로 조였으며, 스커트는 최대한 넓혀졌고 머리 장식도 높아졌다. 또, 지나친 콜렛의 압박으로 노출된 가슴의 혈관이 피부 밑으로 파랗게 비쳐 보이는 것이 매력이었다. 이렇게 로코코풍 의상은 유럽 문화가 육체의 에로티시즘을 강화하기 위해 복장에서 발견한 가장 세련된 결정체였으며, 코르티잔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스커트를 범종처럼 부풀게 도와주었던 라이프록



〈그림 4〉 뒤바리.

(<http://www.wga.hu-web>)



〈그림 5〉 코라 펠.

(<http://www.spock.com>)



(<http://www.spock.com>)

19) J. Anderson Black and Madge Garland, *세계 패션사 1*, 윤길순 역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7), p. 169.

크(reifrock)는 위엄을 나타내는 역할 이외에도 예로 틱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역할을 했다²⁰⁾. 당시 향락이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향락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맛보려고 했고, 뜻하지 않은 임신을 비밀로 해두고 싶었기 때문에 라이프록크를 그런 목적으로도 이용하였다. 또한, 범종 형태의 스커트가 움직일 때마다 슬쩍슬쩍 보이는 발은 스커트에 의한 은폐가 보이기 위한 은폐에 지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며 코르티잔들은 일부러 이를 이용하였다.

4. 19세기

19세기 후반부터의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대에는 코르티잔이 지배한 마지막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세기초의 제2제정 시대에는 코르티잔들이 너무 활개를 쳐서 “파리는 코르티잔이다.”라고 한 발자크(Balzac)의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²¹⁾.

1) 코라 펄(Cora Pearl)

프랑스의 코르티잔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 여성인 코라 펄이었는데, 음악가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큰 키에 풍성하고 구불거리는 붉은 머리, 들창코와 주근깨로 이른바 전통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무척 명랑하고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고의 코르티잔이 되었다²²⁾. 그녀가 파리에 입성한 시기도 적절하였는데, 마침 제2제정의 사치와 쾌락과 힘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1873년 1월 14일 <르 피가로(Le Figaro)>지는 코라 펄의 빛 목록을 게재했는데, 건축업자에게 4,500프랑, 출판업자에게 300프랑, 양장점 주인에게 6,625프랑, 포목상에게 5,440프랑, 칼을 제조하는 회사에 2,500프랑²³⁾ 이상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코라 펄은 또한 보석 장신구를 좋아하여 항상 널찍한 황금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했으며, 머리에는 꽃을 꽂고 가슴에도 보석이나 꽃을 장식으로 달았다. 그리고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널찍한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매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자주 끼었는데 이 반지는 팔찌와 가느다란 줄로 연결되어있었다²⁴⁾.

또한, 지나친 화장으로 유명하기도 했으며, 가끔 대담한 옷차림과 장신구로 더욱 이목을 끌었다. 머리 염색 또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녀의 모습에 반한 다른 여성들이 머리를 빨강색이나 분홍색으로 염색하는 등 그녀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그림 5>의 코라 펄은 시농(chignon) 스타일로 머리를 뒤로 가지런히 올리고 있으며, 깃털로 장식된 토그 형식의 작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녀의 의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토그는 기수의 모자를 닮았고, 장식된 깃털은 새의 야성과 자연의 관능을, 다른 한편으로는 포획하고 강탈하고 소유하는 사냥을 상징했다. 대담한 페티코트의 크기는 엉덩이를 커 보이게 했고, 실크와 새틴은 그녀가 누리는 부를 상기시켰고, 반짝이고 빛나는 장식들은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지를 반영했다.

2) 아폴로니 사바티에(Apollonie Sabatier)

보들레르(Baudelaire)의 연인이었던 아폴로니 사바티에는 자작이던 아버지와 바느질하는 여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었으며, 손도 뛰어난게 아름다웠고 술이 풍성한 구릿빛 머리카락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여러 화가의 작업실을 드나들면서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자유분방한 삶에 빠져들었다²⁵⁾.

코르티잔이 된 후 발자크, 고티에, 플로베르, 막신 뒤 강, 보들레르 등이 모이는 해시쉬 클럽에 참석하여 미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20) 에두아르트 폭스, *Op. cit.*, p. 95.

21) 버지니아 라운딩, *파리의 여인들*, 김승욱 역 (서울: 동아일보사, 2003), p. 24.

22) 니키 로버츠, *Op. cit.* p. 390.

23) 타마키 호에리, *남자들은 왜 악녀에게 끌리는가?*, (서울: 한언, 2004), p. 394.

24) 버지니아 라운딩, *Op. cit.*, p. 321.

25) *Ibid.*, p. 145.

〈표 1〉 세기별 코르티잔 복식 특성

세기	특성	종류
16세기	낮게 파인 네크라인	진주, 루비, 에메랄드 보석 장식
17세기	타원형의 대담한 네크라인(테폴페) 팔꿈치 길이 소매	목에 꼭 맞는 목걸이 보석 장식 헤어밴드, 헐리별리 헤어스타일
18세기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스퀘어네크라인 가는 허리, 부풀린 스커트(크리놀린)	진주, 꽃, 리본 장식 네크프릴, 진주팔찌
19세기	가는 허리 강조 부풀려진 스커트(크리놀린)	머리 염색, 진한 화장, 보석 장식 깃털 장식 토크, 캐시미어 숄, 가죽장갑

사바티에는 옷에 관심이 많았지만 판매 박힌 패션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주변의 화가들이 그녀가 입는 옷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직접 디자인을 해주기도 하여 그녀는 독창적인 의상을 입게 되었다.

〈그림 6〉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가 그린 〈화가의 아틀리에〉라는 그림에 등장하는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어깨에 캐시미어 숄을 걸치고 있는데, 그 캐시미어 숄은 근로 여성들이 10년 이상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고가품으로 계급적인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내내와 20세 파리의 유행은 코르티잔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라는 전통을 만들어낸 나폴레옹 3세 왕비의 전속 드레스 재단사인 워스(Worth)는 프랑스 최상류층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코르티잔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다.

IV.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복식 특성

1. 오페라의 배경

19세기 소설가들은 폐병에 걸린 매춘부가 자신을 희생하는 고결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농락하는 고급 창부의 이야기를 즐겨 다루었으며, 화가들은 실크해트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야한 속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고급 창부를 주제로 삼았다²⁶⁾.

〈라 트라비아타〉 역시 코르티잔의 사랑을 주제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50년대 파리 및 그 교외를 배경으로 고급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는 비올레타는 순수한 귀족 청년 알프레도(Alfredo)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예전의 생활을 청산한다. 알프레도는 그녀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보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로 떠났는데 때마침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비올레타를 찾아와 그녀가 가문의 오점이 되고 있으니 알프레도 곁을 떠나달라고 당부한다.

비올레타는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파리에서 돌아온 알프레도는 그녀가 남긴 이별편지를 읽고 파티장으로 찾아가 비올레타에게 함께 떠나자 하지만 제르몽과의 약속 때문에 뒤돌아와서 사랑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냉혹해진 알프레도는 남작과의 내기 도박에서 이긴 돈을 비올레타에게 던지며 비웃고 비올레타는 충격으로 쓰러진다. 비올레타는 폐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알프레도와 재회하지만 알프레도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만다.

〈라 트라비아타〉의 초연은 크게 실패하였는데, 이는 결혼을 일종의 거래로 여기는 부르주아의 가족이 기주의, 금전 만능주의, 코르티잔과 합세한 상류층의 문란하고 왜곡된 성 문화 등 19세기 유럽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두운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희

26) 스티븐 킨, *문학과 예술의 문화사*, 남태경 역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 279.



〈그림 6〉 아폴로니 사바티에.

(<http://upload.wikimedia.org>)



(<http://fr.wikipedia.org>)



〈그림 7〉 마리 뒤플레시스.

(<http://en.wikipedia.org>)

생과 불운은 모두 아름답고 배경 없는 코르티잔에게 떠맡기는 잔인한 작품이기 때문이었다.

2. 여주인공 비올레타의 복식 특성

1) 비올레타의 탄생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여주인공 비올레타(Violetta)는 파리의 아름다운 코르티잔 마리 뒤플레시스(Marie Duplessis, 1824~1847)가 모델이다(그림 7).

로맹 비엔(Romain Vienne)은 마리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했다. “그녀의 키는 크고 날씬했으며 봄꽃처럼 싱싱했다. 하지만 터키인들이 좋아하는 풍만함은 없었던 것 같다. 그녀는 화가의 모델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조각가의 모델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분 좋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길고 가느다란 검은 머리는 아주 근사했으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솜씨로 빗어 올리곤 했다. 달걀형의 균형 잡힌 얼굴은 차분히 쉬고 있을 때에는 약간 창백하고 우울하게 보였지만 금방 생기를 띠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발은 아주 작아서 손가락이 아주 길어 보였으며, 긴 속눈썹이 달린 커다란 검은 눈으로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부드러운 시선을 바라보면 사

람들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되었다.”²⁷⁾

그녀의 천부적인 센스와 아름다움은 19세기 파리에서 빛나는 이력으로 그녀만의 저택, 마차, 오페라의 특별석을 지니게 하였으며, 1년에 100,000 프랑을 써버릴 정도로 매우 부유하여 상류 코르티잔으로서 품위를 유지했다²⁸⁾.

파리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으로 칭송받으면서 ‘성스러운 마리’로 불리던 그녀는 결핵으로 17세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체념으로 달관한 듯 보였고 25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위와 명성을 얻었다.

뒤마(Dumas)는 마리가 결핵으로 죽은 지 1년 만인 1848년에 삶과 죽음을 기초로 한 소설 <춘희>를 출간했으며, 희곡으로도 각색된 후, 1853년 베르디(Verdi)에 의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재탄생되었다.

2) 비올레타의 복식 표현

<라 트라비아타>의 비버리 실즈 주연(Beverly Sills) 공연물을 V1, 안젤라 게오르규 주연(Angela Gheorghiu) 공연물을 V2, 스테파나 본파넬리 주연(Stefania Bonfadelli) 공연물을 V3, 르네 플라밍 주연(Renée Fleming) 공연물을 V4라고 편의상 별칭하고,

27) 버지니아 라운딩, *Op. cit.*, p. 63.

28) 사진 검색 [2008년 3월 1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eno.org/src/La_Traviata.pdf

<표 2> 비올레타 복식 비교

	V1	V2	V3	V4
1막 #비올레타 저택의 파티장				
2막 1장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파리 근교 저택				
2막 2장 #비올레타 후원 남작의 파티장				
3막 #비올레타 침실				

<표 3> 비올레타 복식 요소

	V1	V2	V3	V4
1막 #비올레타 저택의 파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새틴 소재 드레스 오버스커트 · 오프숄더 칼라 · 짧은 퍼프슬리브 · 레이스, 리본, 꽃장식 · 흰색 부채 · 손가락 없는 흰색 레이스 장갑 · 커다란 보석 귀걸이 · 단정한 긴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새틴과 비치는 소재의 더블스커트 · 크리놀린 스타일 · 오프숄더네크+비치는 레이스와 큐빅장식 · 흰색 장방형 쉬폰 솔 · 흰색 부채 · 흰색 동백꽃 장식 · 보석메달의 네크레스 · 업스타일 머리+ · 보석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트색 새틴 언더스커트+ 레이스 오버스커트 드레스 · 발목길이 · 깊은 보트네크 +레이스장식, 핫픽스 · 짧은 소매 · 보라색 무늬 진민트 색의 벨벳 가운 · 긴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스트라이프 패턴 아이보리색 드레스 · 리본, 브로치 장식 · 오프숄더네크라인 +레이스 장식 · 흰색 레이스 장갑 · 흰색 부채 · 흰색 레이스 손수건
2막 1장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파리 근교 저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단에 턱장식이 있는 연노랑 드레스 · 깊은 V네크라인+비치는 소재 가리기 · 비치는 소재의 비숍슬리브 · 리본장식 · 늘어뜨린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직브로케이드 소재 드레스 · 깊은 V네크+프릴 · 캡슬리브+파고다 슬리브 겹 소매 · 브레이드와 리본장식 · 흰색 비숍슬리브 슈미즈 · 늘어뜨린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더 장식의 아이보리색 슈미즈 · 회색톤 패턴물의 면 소재 드레스 · 선장식 · 비숍슬리브 · 모직 솔 · 뒷머리를 정수리에 틀어 올리고 옆머리를 늘어뜨린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스프릴 장식 흰색 드레스 · 깊은 V네크라인 · 자주색 벨벳 솔칼라 가운 +넓은 턴업커프스 장식 · 파고다슬리브 · 흰색 동백꽃 코사지 · 흰색 레이스 손수건
2막 2장 #비올레타 후원 남작의 파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드레스 · 오프숄더네크 · 흰색 티어드 언더스커트+선장식과프릴 장식이 있는 검정색 오버스커트 · 보석과 리본장식 · 손가락 없는 흰색 긴 장갑 · 검정색 부채 · 쉐 업 스타일의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자카드드레스 · 오프숄더네크 +투명레이스와 검정색 큐빅 장식 · 리본장식 · 검정색레이스 긴장갑 · 검정색 부채 · 업스타일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새틴 언더스커트+금자수 검정레이스의 오버스커트 · 짧은 소매 · 팔꿈치길이 검정색 새틴장갑 · 모피솔 · 검정 보석 장식의 티아라 · 업스타일 머리 +검정색 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색 세로줄패턴 드레스 · 오프숄더 네크라인 · 짧은 퍼프+타이트 룡슬리브 · 벨벳+새틴 소재 · 흰색 슈미즈 · 보석, 레이스, 리본 장식 · 검정레이스 손수건 · 보석 장식 머리관 · 검정색 부채
3막 #비올레타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의 나이트드레스 · 비숍슬리브 · 끝단에 턱장식, 레이스장식 · 가장자리 술장식의 연핑크색 모직 솔 · 풀어 늘어뜨린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머슬린소재 나이트웨어 · 셔츠풍 긴 소매 · 밑단양옆에 슬릿 · 앞트임 단추여밈 · 흰색 꽃무늬 가운 +레이스 장식, 넓은 소매 · 풀어 형클어진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보리색 나이트드레스 · 앞은 발목길이 뒤는 바닥에 끌리는 길이 · 개더장식, 턱장식 · 니트 솔 · 풀어 늘어뜨린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보라색 주름 소재 나이트드레스 · 깊은 라운드네크라인 +레이스 장식 · 파고다슬리브 · 아이보리색 손수건 · 풀어 늘어뜨린 머리

코르티잔인 여주인공의 복식을 <표 2>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1) 1막

비올레타는 1막에서 코르티잔의 화려함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흥분을 표현하고 있으며, 파티 장면에서 화려하고 향락적인 파리사교계의 생활이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 V2 비올레타 드레스의 가슴 부위에 흰색의 동백꽃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백꽃 아가씨’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

19세기의 여성미에 관한 부르주아의 규범은 줄라맨 허리, 자그마한 팔다리, 연약한 손목과 발목, 그리고 눈처럼 흰 피부였다. 이러한 여성미를 위해 제2제정 시기 코르셋의 형태는 하단부터 길이가 짧아졌고, 상단에서는 V자 모양으로 가슴 부분이 드러났다. 또한, 코르셋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게 파진 데콜레 드레스의 착용이 가능하였으며 당당한 가슴이 강조되었다. 허리는 항상 바짝 죄여졌기 때문에 부피가 확장되는 엉덩이를 찬미하는 크리놀린의 풍성함과 적절하게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V2, V3, V4의 1막 장면에서 보듯이 스커트를 원하는 형태로 부풀리기 위해 착용된 후프형 페티코트는 이제까지 패드를 대고 크리놀린을 입고 그 위에 풀 먹인 모슬린 페티코트까지 입어서 무겁고 움직임에 방해가 되었던 차림에 비해 훨씬 가벼웠으며, 적은 수의 허리띠로 허리가 더 날씬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모습은 더욱 경쾌해 보인다.

V1에서처럼 발등이 살짝 보이는 스커트 길이는 후프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의해 발이 노출되었으며,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노출은 여성의 매력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주인공이 손에 걸치고 있는 부채는 무도회장에서 오래된 전통과 결부된 필수불가결한 소품으로, 보다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호화롭고 정교한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잘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킨다는 핑계로 우아한 동작을 허용하고, 휘젓고 접고 펴고 세우고 내리는 방식으로 감춰진 듯한 것을 보게 만들며 보이는 것을 가리기도 하였다.

(2) 2막 1장

코르티잔으로서의 생활을 접고 화려한 파리를 떠나 알프레도와 파리 근교 저택에서 생활하는 비올레타는 지난날 화려한 모습이 아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다.

V3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복식 아이템인 솔의 착용을 볼 수 있는데, 솔은 19세기 초보다 훨씬 넓어졌으며 소재도 캐시미어를 비롯하여 울, 실크, 레이스 등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였다. 특히 이브닝 드레스를 입을 때는 보통 솔보다 훨씬 넓은 것을 두르기도 했는데, 크리놀린의 동반자로서 아주 길게 퍼지는 것이 가능하며, 등의 윗부분을 드러내면서 양어깨로부터 솔의 두 부분을 두 팔 위로 늘어뜨려 착용했다.

가슴의 노출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목적인 솔은 오히려 여자의 교태를 위한 아주 세련된 도구가 되었다. 솔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슴을 가릴 수 있다는 전제로 얼마만큼 파내어도 된다는 이제까지의 규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V2와 V4에서 보이는 소매는 팔꿈치 아래가 넓게 벌어지는 파고다 슬리브(pagoda sleeve)이며, 손목 부분에는 안에 착용한 언더블라우스의 일부가 드러나게 했다.

프랑스 보병인 주아브(Zouave) 군복은 패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마음에 들어 브레이드 장식이 후기 제정 시대의 특징이 되었는데²⁹⁾, V2의 비올레타 드레스의 앞 중심에도 연속된 브레이드 장식을 함으로써 당시 유행스타일을 재현하고 있다.

V1, V2에서 비올레타의 드레스는 노랑색이다. 노랑색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색이며 밝은 느낌 그대로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을 드러낸다³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여 혼자 있기보다는 항상 사람들과 있기를 좋아 하는 밝은 성격을 상징하기도 한다.

(3) 2막 2장

비올레타의 후원자인 남작의 파티장은 스페인복장으로 차려입는 무도회라는 주제가 있어서 비올레

29) 블랑쉬 페인, *Op. cit.*, p. 589.

30)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서울: 살림, 2003), p. 70.

타 역시 검은색의 드레스 차림이며 무채색인 검정색 드레스에 장식된 소품들은 더욱 빛을 발한다.

장신구는 아름답게 한다는 첫 번째 목적 외에 육체의 특수한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하려고 사용되었다. 가령 느슨한 팔찌는 손목을 화사하게, 꼭 끼는 팔찌는 손목을 굵게, 구두의 커다란 뾰족은 다리를 가늘게, 귀걸이는 귀를 작게, 반지는 손가락을 가늘게 보이게 위한 것이었다. 19세기 초반부터 사용된 다양한 머리 장식에는 티아라(tiara), 밴도(bandeaux), 진주나 유색 보석을 엮은 줄, 꽃이나 화살 모양 머리핀 등이 포함된다³¹⁾.

오페라에서는 빛나는 보석 장식의 귀걸이와 브로치, 티아라관으로 장식함으로서 단순한 색채의 의상을 돋보이게 하였고, 다시 화려한 사교계로 돌아온 여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1840년대 여성들의 머리는 납작하게 틀어 올린 트레머리에 양옆은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 내려뜨린 스타일로 1850년 중엽까지 계속해서 유행하였으며, 그 후는 틀어 올린 트레머리의 위치가 목덜미 쪽으로 점차 낮아졌다. V3에서도 당시 머리스타일로 중앙 가리마에 전체적으로 귀 뒤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목 뒤에서 묶는 스타일이다.

장갑 역시 완화된 색상들로 인해 손이 작아 보이게 했는데, 하루의 시간대에 맞추어 광택이 있거나 광택이 없는 장갑을 착용하기도 하고 도회복에는 게피색이나 스펀지색을, 무도회나 연주회를 위한 저녁 나들이옷에는 밝은 색상의 빛이 나는 장갑을 착용했다. 장갑은 아주 선정적인 별개의 신체 부위이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표인 손을 세련되게 만들었으며, 욕망의 제어와 동시에 자극으로 작용하면서 함축된 모든 성적 의미들을 더욱 더 강조했다. 비올레타 역시 검은색 레이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4) 3막

3막에서의 비올레타는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이 죽어가면서 돌아오지 않는 연인에 대한 미련, 원망, 기다림에 지쳐 결국 삶을 포기해 버리는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연 돌아온 알프레도를 맞이하는 순간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용솨음치는 걸

느끼다가 결국 스러져 죽음을 맞이해야 하므로 예뻐 보이는 것조차 포기해야 한다.

코르티잔이 패션을 이끌던 19세기말의 패션은 유흥적인 인공물로서의 18세기 귀족 여성의 이상화된 이미지와 강한 연관성을 지닌 실크와 레이스의 칼리플한 란제리와 실내복, 프릴과 레이스 러플, 연한 꽃색채, 곡선적인 라인의 티가운(tea gown)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여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게 마지막을 부탁하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옷장을 열어달라고 해서, 나이트캡과 레이스로 덮힌 긴 속옷 하나를 가리키며 자신이 죽을 때 이 옷을 입혀 달라고 부탁하였다.

V1~V4까지 비올레타의 나이트 웨어는 옅은 색상과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더욱 병약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리본과 레이스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는 헝클어져 늘어뜨림으로서 병들어 꾸미지 않은 여주인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V. 코르티잔의 복식 특성

코르티잔 복식은 소재와 스타일, 색상, 착용 방식 등 모든 측면이 집단 나름의 기호로 작용되므로 그들이 중심으로 표현하는 복식의 특성이 있다.

1. 관능성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인 관능성은 패션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유흥하고 싶은 욕망은 한껏 멋을 부리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복식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심한 노출, 여성 신체부위의 강조, 혹은 형태적 과장으로 보이는 강박적 집착 등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특히 19세기 말 상류 계급의 코르티잔의 모습이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글레머러스(glamorous)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다³²⁾.

코르티잔들은 관능적으로 보이기 위해 네크라인을 데콜레테(décolleté)하고 하늘거리는 리본, 프릴, 레이스로 장식하여 가슴을 강조하였다.

31)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김숙 역 (서울: 시공사, 2000), p. 135.

32) Valerie Steele and *Femme Fatale, Fashion Theory*, v8 i3, p. 48.

또한, 화려한 색상의 섹시한 속옷은 성적 오브제로서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착용되던 것이었으나, 1880년경에는 흰색의 속옷만을 착용하던 일반 여성들도 이것을 착용하게 됨으로서 장식적인 미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 초상화와 사진에서 코르티잔의 모습은 정숙한 부인들보다 선정적인 차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대부분 숨김이 없고 당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의상 외에도 볼과 손톱을 붉게 칠하기도 하고 타조 깃털, 루시(ruche) 장식, 부채를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2. 사치성

코르티잔들은 20세기 시카고의 풍기단속위원회 취재자들에게 매춘을 하는 이유가 비참한 가난 때문이 아니라 최신 유행의 새 옷과 향수, 그 밖의 사치품을 사고 싶어서라고 답했으며, 그들에게 기대되는 초라한 옷차림 대신 귀부인처럼 보이고 싶어했다³³⁾.

또한, 코르티잔들은 위스와 같은 쿠튀리에들에게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의상을 구매하여 자신이 줄부임을 알렸고 쿠튀리에들도 기꺼이 이들에게 의복을 판매했다.

코르티잔 중에는 패션 자체보다 사치스러움을 더 선호하여 심플한 엘레강스가 선호되던 때조차 파스텔톤 드레스에 레이스와 자수, 애플리케 장식을 하였다³⁴⁾.

여우털, 밍크, 깃털, 브로케이드, 벨벳 등의 화려한 직물 외에도 19세기 말 코르티잔들이 입은 것과 같은 실크 벨벳과 세이블 같이 사치스러운 재료는 당시 그들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절대주의 시대에 유행한 복장의 끝없는 사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탐닉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두드러진 증거 중 하나이며, 당시 코르티잔은 남자들을 위한 가장 세련된 구경거리이자 만들어진 값비싼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신분 상징성

몸차림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시대에서 복장은

신분 제도 속에서 자신의 뛰어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패션의 불안정성은 중세 후기 나타나기 시작해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기간 동안 퍼지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르주아의 경제력,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욕망과 귀족 계층을 더 모방하려는 경향을 촉진시킨 경제력이 성장한 것이다³⁵⁾.

패션이 계급 제휴와 계급 구별의 도구로 쓰이긴 하였지만 유럽 각지의 왕후나 귀족, 부호들에게 있어서 코르티잔과의 교제는 신혼 줄부들의 씹씹이가 왕후나 귀족보다 훨씬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같이 느껴졌다. 코르티잔은 그들의 자존심이나 과시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로를 경쟁시키면서 더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코르티잔들이 남자를 파멸시키는 모습은 그녀 자신이 속한 계급, 가난에 찌든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복수를 의미하는 사디즘(sadism)으로 표현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사치품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위를 나타내고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며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허식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며 사치가 조장되는 것이다.

코르티잔들은 신분상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쳐야 했으며, 최신 스타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옷을 선택하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상승된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VI. 결 론

코르티잔은 비록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았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들로서 성과 계급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해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문화와 패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 각 시대의 코르티잔들은 밀바닥에서 출발하여

33) 니키 로버츠, *Op. cit.*, p. 417.

34)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s*, (Cologne: Köhmann, 2000), p. 38.

35) 질 리포베츠키,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p. 68.

고급 화류계의 전설적인 주인공이 되었으며, 시대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시간 감각,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뛰어난 지성, 생을 즐길 줄 아는 쾌활함, 우아함 몸가짐,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비스러운 매력 등으로 타고난 조건보다는 미를 추구하는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시대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2. 코르티잔은 외모 뿐만이 아니라 의상을 고르는 감각이나 의상을 소화해내는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는데, 실크와 케시미어의 사용 등 유행의 첨단을 걸음으로서 신분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저항했다. 이렇게 코르티잔들은 패션문화에 사회 문화 현상을 반영하였으며, 대단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기에 디자이너들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코르티잔은 패션 리더가 되었다.
3.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코르티잔 복식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 가늘게 즐라맨 허리, 부풀려진 스커트, 보석 장식, 값비싼 소재의 장식품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정적이고 사치스러운 복식 요소는 일반 귀족 여성보다 더 여성스럽고 더 화려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보인다.
4. <라 트라비아타>에 나타난 1막과 3막 비올레타의 파티드레스는 당시 유행을 이끌던 코르티잔의 스타일처럼 깊고 넓게 파인 데콜테로 인해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한껏 조였으며, 풍성한 엉덩이 부분은 크린노린으로 부풀려 걸을 때마다 흔들거렸다. 또한, 실크와 레이스 등 화려한 소재와 빛나는 보석, 부채, 네크레스 등 장신구들로 사치스럽게 표현되었고, 일반 복장의 경우에도 영상물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브레이드와 레이스, 프릴, 리본 등을 장식하였다. 3막의 경우 흰색과 옅은 연보라색, 레이스, 얇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했던 코르티잔으로서의 삶을 마치는 병든 여성의 연약함을 강조하였다.
5. 코르티잔의 복식에는 관능성, 사치성, 신분 상징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코르티잔들은 속물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야하면서도 패션어블하여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사치를 통해 존엄성의 외관을

을 수용하였다. 또한, 과시적인 소비로 지위를 나타내고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며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패션을 사용하였다. 부유한 남성들이 코르티잔의 애정을 얻기 위해 드레스와 장신구에 돈을 쓰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코르티잔 역시 그로 인하여 사회적 신분을 높일 수 있었다.

4세기에 이르는 코르티잔의 복식 특성은 수집된 81장의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야 했으므로 시대별 복식 특성을 참고로 하여 코르티잔으로서 두드러진 복식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오페라 공연 복식은 124컷의 캡처 컷을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로 대신한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향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패션 리더로서의 코르티잔의 복식 특성 연구에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복래 (2007). “철학자가 사랑한 매춘부 헤타이라.” *ANTIQUUS*. Vol. 13.
- 김선옥, 양진모 (2003).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1*. 서울: 풀빛.
- 남후남 (1992). “패션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 노출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니키 로버츠 (2002). *역사 속의 매춘부들*. 서울: 책세상.
- 수잔 그리핀 (2004). *코르티잔 매혹의 여인들*. 서울: 해냄.
- 도미니크 파케 (1999). *화장술의 역사*. 지현 역. 서울: 시공디스커버리총서.
- 박영수 (2003).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서울: 살림.
- 버지니아 라운딩 (2003). *파리의 여인들*. 김승욱 역. 서울: 동아일보사.
- 블랑쉬 페인 (1988).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3인 역. 서울: 까치.
- 스티븐 킨 (2005). *문학과 예술의 문화사*. 남태경 역. 서울: 휴머니스트.
- 에두아르트 폭스 (1993). *풍속의 역사 II.III*. 이기웅

- 역. 서울: 까치.
- 엘리자베스 루즈 (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이재한 역. 서울: 시지락.
- 조운선 (2007).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서울: 시공사.
- 질 리포베츠키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 클레어 필립스 (2000). *장신구의 역사*. 김숙 역. 서울: 시공사.
- 타마키 호에리 (2004). *남자들은 왜 약녀에게 끌리는가?*. 서울: 한연.
- Black, J. Anderson (1997). *세계 패션사 2*. 윤길순 역. 서울: 자작아카데미.
- Black, J. Anderson and Madge Garland (1997). *세계 패션사 1*, 윤길순 역. 서울: 자작아카데미.
- Crane, Diaana (2004).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미석 역. 서울: 한길사.
- Fils, A. Dumas, 손우성 (1981). *춘희*. 서울: 서문당.
- Mcpherson, Heather (1999). "Sarah Bernhardt: Portrait of the Actress as Spectacle." *Nineteenth Century Contexts*. Vol. 20.
- Perrot, Philippe (2007). *부르주아 사회와 패션*. 이재한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Seeling, Charlotte (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s*. Cologne: Köhnmann.
- Steele, Valerie and *Femme Fatale*, *Fashion Theory* Vol. 8, No. 3.
- 사전 검색 [2008년 2월 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en.wikipedia.org/wiki/Courtesan.
- 사전 검색 [2008년 3월 1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eno.org/src/La_Traviata.pdf.
- www.stc.ac.kr/board
- 〈La Traviata〉 (1976) Beverly Sills 주연.
- 〈La Traviata〉 (1995) Angela Gheorghiu 주연.
- 〈La Traviata〉 (2002) Stefania Bonfadelli 주연.
- 〈La Traviata〉 (2006) Renée Fleming 주연.